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 230여억원 수출 계약

12개 기업 1-8일 하노이·방콕 공략

약 50억원 규모 MOU도 체결해

2023년 출범 후 매년 성과 경신

광주 북구는 지난 1-8일 6박8일간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 광융합무역촉진단을 파견했다. 사진은 하노이에서 진행한 수출상담회. 〈광주북구 제공〉

광주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베트남과 태국에서 총 1천750만달러(약 23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 내 광통신, 광의료, AI 기반 광융합기술 등 3개 분야 12개 기업이 참여한 '2025년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난 1-8일 6박8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광융합무역촉진단은 하노이와 방콕에서 각각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수출 상담회 ▲현장 간담회 ▲기업 비즈니스 미팅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현장 일정에 앞서 북구는 베트남과 태국이 최근 스마트도시화와 스마트팜 확산으로 광융합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요 바이어 유형 등을 사전 분석했고 맞춤형 매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광융합무역촉진단은 680만달러 규모의 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천70만달러 상당의 수출을 약정 계약했다.

또 370만달러(약 5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고 참여 기업 12개 모두 현지에서 계약 및 협약을 맺는 등 내실 있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 트로닉스와 아이오라이트의 스마트도시 실증 구축 참여 지원과 4차 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융합무역촉진단은 경쟁력 있는 북구 소재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 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3년 광융합무역촉진단을 필리핀과 베트남에 파견해 934만달러를, 지난해 상반기에는 미국 LA와 샌디에이고 등 미주 시장을 대상으로 1천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재영 기자

동구, '빛나는 아이나라' 내달 운영

금남지하상가 내 '어린이 문화공간'

이달 준공…ACC 시너지 효과 기대

광주 동구가 어린이미디어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 준공을 이달 중 완료하고 다음 달 말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빛나는 아이나라'는 금남지하상가 2공구 내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던 지하상가 점포 39개를 지난 2023년 1월부터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총 86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기존 상업 중심의 공간을 어린이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 해 장기간 침체된 지하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면적 약 1천600㎡(484평) 규모의 '빛나는 아이나라'는 예술창작소와 동화공작소로 구성되며 시그니처 공간(빛의 길, 빛나는 갤러리)과 체험 놀이공간(빛나는 클래스, 놀이공방, 나만의 동화 만들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운영 계획도 수립됐다.

이와 관련, 동구는 최근 ACC의 '하우-펀(HOW-FUN)' 어린이날 주간 행사 기간에 '빛나는 아이나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1천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빛나는 아이나라'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놀이 배움터이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공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문도시 가치와 도시 브랜드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남구, 오는 21일 '예비 고교생' 입시 설명회

오늘부터 선착순 100명 접수

광주 남구는 8일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설명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대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강사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형래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상담교사가 나서며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향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고교학점제 도입 흐름 ▲고등학교 선택 시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진학·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9일부터 '광주 남구 문화교육행사' 앱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예비 고교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 받으세요"

광산구-광주도시공사 MOU

우산빛여울채서 '살던집' 추진

간호사·사회복지사 상주 눈길

광주 광산구가 거주지를 기반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계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살던집 주거 기반 시설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사진〉

살던집 프로젝트는 고령자, 장기 입원 또는 퇴원자, 시설 퇴소자 등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산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앞서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 1억500만원을 확보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필수 시설, 기본 운영 계획 마련에 나서며 우산빛여울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광주도시공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케어홈'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약자 편의 시설이 갖춰진 '중간집(재활주택)' 30호를 제공한다.

광산구는 사업 기획과 입주자 자격 심사, 서비스 연계 등 전반을 총괄하며 전담 인력 채용과 함께 '케어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 모집을 마치는 데로 돌봄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던집'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산형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옥근 기자

서구, 시·청각장애인용 TV 유상 보급 접수

오늘부터 27일까지…내달 순차 지원

광주 서구는 8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9-27일 '2025년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 유상보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어 방송, 자막 분리, 화면 확대 등 시·청각 장애인 대상 특화 기능이 탑재된 텔레비전을 보급해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눈·귀 상이 등급자 중 무상 보급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아닌 자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보급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보급 누리집(tv.kcmf.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1688-4596)로 문의하면 된다.

유상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금 5만원으로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텔레비전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닌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매개체"라며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